

# 박정희와 그의 시대, 역사적 재평가

## 긍정과 부정의 양극단 지양한 객관적 일차자료 점차 늘어

어느덧 코앞에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맞아 각 정당의 후보경선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대통령에 대한 비교평가와 아울러 그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그 중에서도 故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그의 오랜 재직기간과 비례해 분명, 남다른 데가 있다. 영욕이 점철된 그의 생애가 상징하는 시대적 의미가 그렇거니와, 유독 풍성한 크고 작은 비화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는 점도 '대통령 박정희'와 '私人 박정희'의 재평가 작업을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 끊임없는 소재 제공하는 박정희와 그의 시대

그동안 박정희와 그의 시대에 관한 책들은 적잖이 선보여왔다. 그것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든, 당시 관계자들의 폭로성 회고록이든 출간될 때마다 세간의 화제로 떠오른 것은 사실. 10·26사건 이후 5공에 들어서면서 각종 시사잡지에서부터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당시의 정치비화는 6공에 이르러서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뒷이야기들을 쏟아놓았다. 5·16과 유신선포를 둘러싼 정계와 군부 내부의 권력 지형도와 성사과정은 물론 '이유 있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당대 실력자들의 행적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시대를 지나쳐온 사람들에겐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간혹 판금의 철폐에도 불구하고 5·16에서 10·26까지의 20여년간은 각종 시사물에 끊임없는 소재를 제공한 기간이었다.

현재까지도 서점의 점두를 장식하며 꾸준히 읽히고 있는 책들은 줄잡아 20여종. 이들 대부분은 김재규, 김형욱, 이후락 등 박정희 주변의 막후 실력자들에 얽힌 비화와 이른바 정인숙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등 당시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10·26에 얽힌 증언록이나 회고록이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10·26과 김재규」(김대곤, 이삭) 「형님! 나도 한다면 합니다」(손충무, 삼성서적) 「김형욱, 누가 죽였는가」(손충무, 삼성서적) 「김형욱, 최후의 그 얼굴」(손충무, 문학예술사) 「혁명과 이상」(김경재, 전예원) 등이 비교적 인기를 모은 책들로 저자 나름의 취재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해당 사건을 다큐멘터리식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부마사태에서 10·26까지 박정희 집권 말기를 집중적으로 다룬 「有故!」(조갑제, 한길사)와 전 12권에 걸쳐 당시 정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폭로성 짙은 「政風」 시리즈(한국정치문제연구소, 동광출판사)도 기억할 만하다.

「다큐멘터리 박정희」(전4권, 김교식, 평민사)는 거의 유일한 전기물로 꼽힌다. 성장기에서 5·16으로 결실을 맺은 입신과정, 경제성장이라는 최대의 공적과 유신체제로 상징되는 최악의 오점을 동시에 남긴 집권기, 그리고 10·26에 이르기까지를 사건중심으로 꼼꼼히 그려냈다.

이밖에도 김일성과의 비교연구를 시도한 「분단의 정치」(양성철, 한울), 78년 미의회에 제출된 조사보고서로 해방 이후 70년대 후반까지의 한·미관계사를 총괄한 「프레이저 보고서」(미하원국제기구소위원회, 서울대 한미관계연구회 옮김, 실천문화사), 당시의 노동운동, 학생운동, 농민운동을 비롯한 대표적 반정부운동을 모은 「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한승현 엮음, 삼민사) 등은 앞서 소개한 책들과는 또다른 의미에서 당시를 조감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 두 현직자가 쓴 '전기'와 '증언록'

“아침이 되어 도시의 삶이 시작되었을 때 거기에 비통해 하는 군중도, 기뻐하는 학생들도 없었다. 단지 시커먼 표제의 호의들이 뿌려진 거리를 지나던 행인들이 충격적인 뉴스를 읽기 위해 걸음을 멈출 뿐이었다...”

대통령의 죽음을 놓고 보인 국민들의 반응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알려진 이 말은 10·26 직후 당시 주한 미대사였던 글라이스턴이 본국에 전한 보고의 일부분이다. 이 전언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박정희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듯하다. 즉 6·70년대 고도 경제성장을 이끈 카리스마적 면모와 정치적 탄압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를 지연시킨 독재자로서의 면모를 동시에 지닌 박정희라는 한 인물에 대해 10여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상반된 평가만 존재할 뿐, '공인된' 역사적 평가작업은 유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출간된 두권의 책은 다분히 주변적이고 '실록문학'의 성격이 짙었던 기존의 책들과는 달리 오랜 자료수집 과정과 저자 나름의 해석의 시각이 돋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박정희 1」(조갑제, 까치)와 「청와대 비서실」(김진, 중앙일보사)이 바로 화제의 책.

「월간조선」 부장 조갑제의 「박정희 1」은 모두 5권으로 기획된 박정희 전기 가운데 첫째



출간 때마다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박정희' 관련 서적들.

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만과 불운의 세월'이란 부제로 박정희가 권력을 잡기 직전까지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권력이 그 인간을 변모시키기 전의 박정희의 적나라한 모습" 또는 "대통령 박정희의 원형인 학생, 교사, 군인 박정희"를 그려보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10·26 당일의 묘사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책에는 항상 불만이 많았던 성격불량아로서의 성장기와 그의 권력욕의 발달이 됐던 만주군관학교 시절, 그리고 남로당 전력, 반이승만 쿠데타 모의 가담 등 5·16이 성공하기 전까지의 그의 행적이 그동안 새로 밝혀진 사실들에 힘입어 재구성돼 있다.

이 새로운 전기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다름아닌 저자의 머리말 '내 삶 속의 박정희'다. 자신이 박정희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된 것은 그의 사후, 책을 준비하며 자료를 수집해가는 과정에서부터였으며 생전의 모습과는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 소심함과 수줍음, 집념과 결단의 두 얼굴 지녔던 그에게 서슴치 않고 '위대한'이란 형용사를 붙일 수 있다고 말하는 저자는, "장기집권"이나 '독재자'란 간편한 낱말로써는 제대로 그릴 수 없는 거대한 인간적 교감이 박정희와 민중사이에 튼튼히 자리잡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한편 「청와대 비서실」은 3공시대 권력의 핵심인물들과의 방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갖가지 정치 비화들을 공개함으로써 박정희라는 한 인물과 그가 이끌었던 6·70년대를 온전히 복원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기자(중앙일보 정치부) 특유의 발빠르고 명쾌한 이야기 진행이 돋보이는

이 책에는 당시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 대통령의 숨겨진 측근과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이었던 경제 각료들의 증언을 통해 세칭 '윤필용 사건'과 하나회의 결성내막에서부터 차지철, 이후락, 박종규, 김종필, 김성곤 등 당시의 실력자들과 김학렬, 김정렴, 오원철 등 경제계에 깊숙히 개입한 인물들에 얽힌 뒷이야기가 전개된다.

### 객관적 평가 위한 1차 자료의 역할

가장 가까운 현대사의 일부분인 박정희에 대한 객관적 평가작업은 이제 그 첫발을 내딛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체로 긍정과 부정의 양극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바로 박정희라는 한 인물이 보여줬던 양면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그가 이뤄낸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결과물들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적잖이 선보인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다룬 책들은 보다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데 1차적 자료를 제공하는다. 그러나 이 책들이 당시의 비화를 공개한 흥미있는 읽을거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그 시대가 아직까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은 '밀실의 시대'였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책들은 1차적 자료의 역할을 하며 앞으로 전개될 박정희와 그의 시대에 관한 보다 총괄적이고 무게 있는 연구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소연 기자